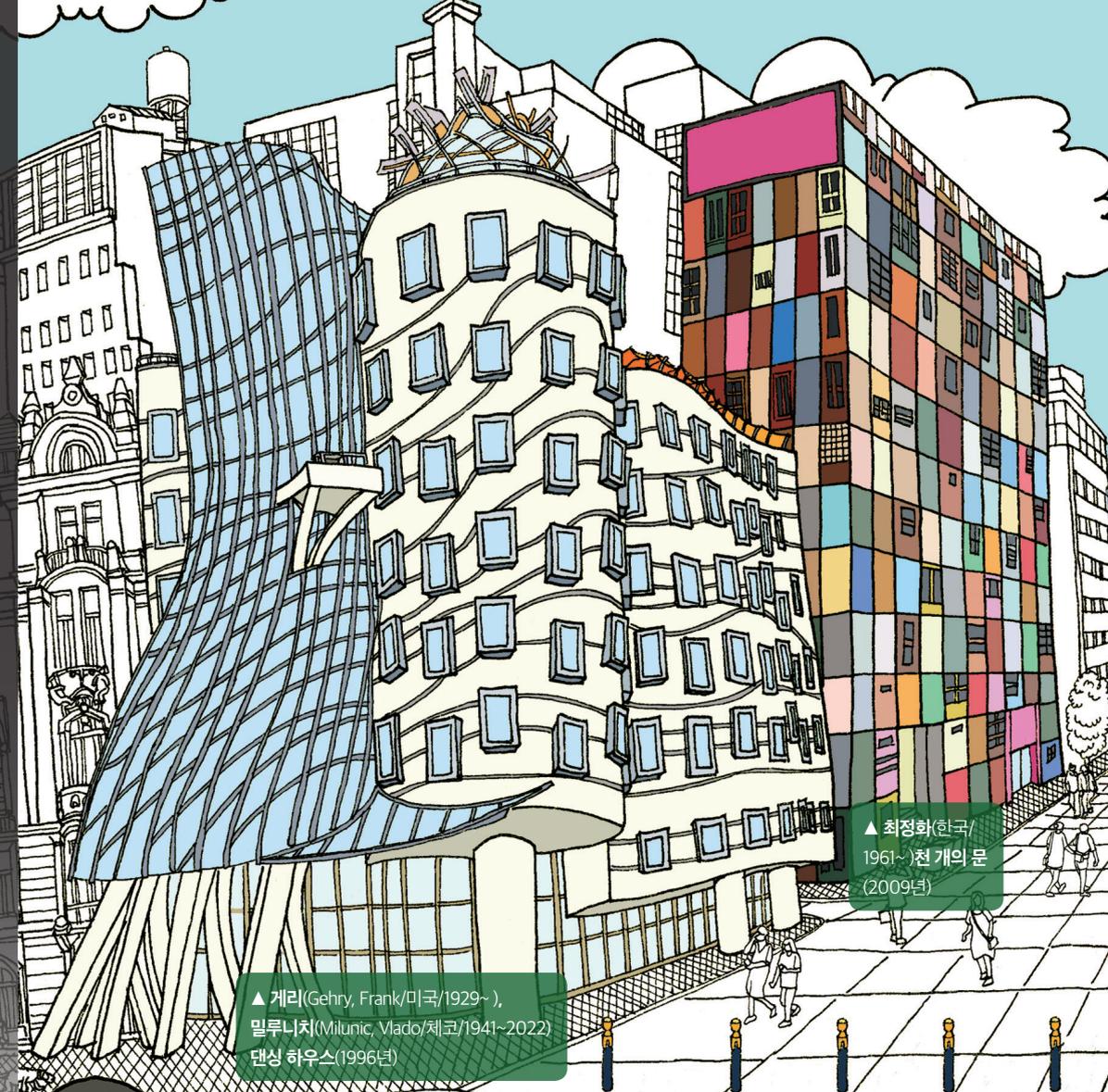


04

주변을 둘러봐, 우리를 둘러싼 이미지들

- 1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찾고 시각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2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 3 다양한 매체로 접한 시각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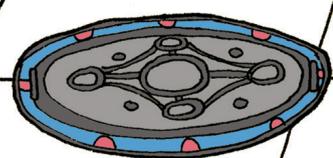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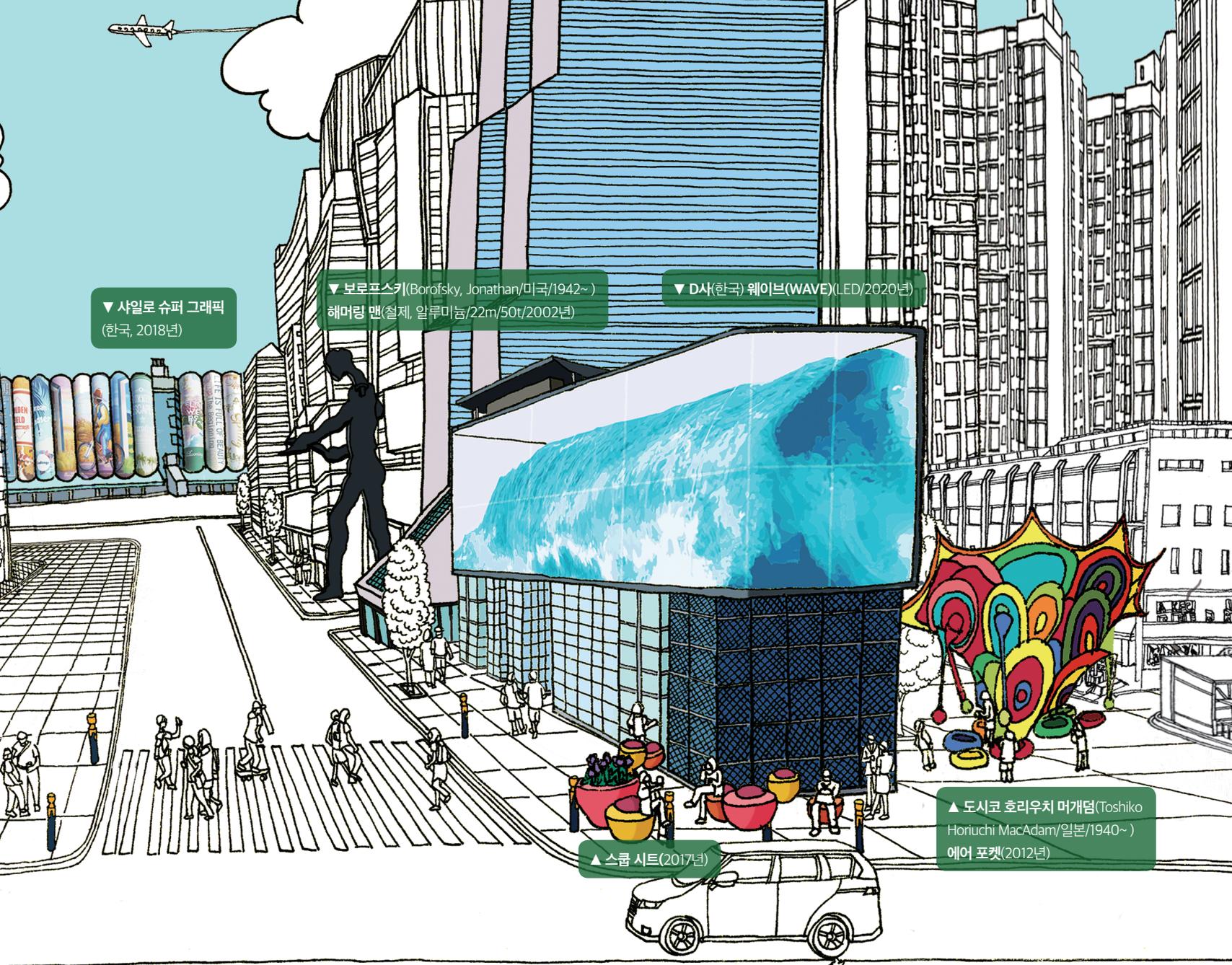
▲ 게리(Gehry, Frank/미국/1929~),
밀루니치(Milunic, Vlado/체코/1941~2022)
댄싱 하우스(1996년)

▲ 최정화(한국/
1961~)천 개의 문
(2009년)

▲ 르 시클로프(Le Cyklop/프랑스/1968~)
L사의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은 볼라드
(2021년)

“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에 만난
모든 시각 이미지를
친구와 이야기해 보자.
”





▼ 사일로 슈퍼 그래픽 (한국, 2018년)

▼ 보로프스키(Borofsky, Jonathan/미국/1942~) 해머링 맨(철제, 알루미늄/22m/50t/2002년)

▼ D사(한국) 웨이브(WAVE)(LED/2020년)

▲ 도시코 호리우치 머개덤(Toshiko Horiuchi MacAdam/일본/1940~) 에어 포켓(2012년)

▲ 스킵 시트(2017년)

우리는 시각문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시각 이미지와 만난다. 거리의 간판,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광고물, 집 앞 벤치, 새로 생긴 건물, 공사장 가림막, 각종 사진과 영상 등 우리의 삶은 시각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시각문화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문화를 뜻한다. 시각문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상점의 쇼윈도 여름 상품 전시를 위해 푸른색의 하늘과 파도로 상점 입구를 꾸미고 마네킹이 배에 올라탄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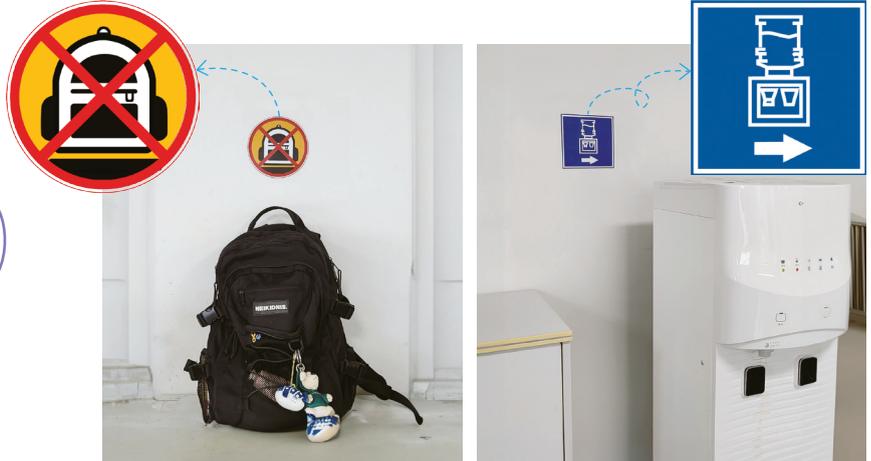
도로의 수호자 교통 표지판



▲ 스웨덴 보도에 설치된 주의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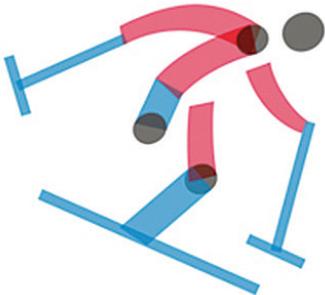
일상의 시각 이미지 읽고 쓰기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 문자 언어를 배우듯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한 소통에도 학습이 필요하다. 시각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면 문화권을 넘나들며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



▲ (좌)조은진(학생 작품) 교내 표지판(디지털 작업 후 출력/지름 19cm) (우)전소윤(학생 작품) 교내 표지판(디지털 작업/20.7×20.7cm) 기호, 상징, 이미지 등 시각 언어를 활용하여 교내에서 쓸 수 있는 표지판을 디자인하였다.

만국 공통어, 픽토그램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픽토그램은 개초국의 문화적·역사적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 함영훈(한국/1979~) 평창 올림픽 픽토그램(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18년) 한글의 네 가지 자음(ㄱ, ㄴ, ㄷ, ㄹ)과 세 가지 모음(애, 에, 어)에서 각 자음과 모음의 고유한 직선과 곡선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래픽 요소를 가미해 종목별 픽토그램을 형성화하였다.



▲ 고미소 외 2명(학생 작품) 몸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사진, 종이, 마커/가변 크기) 학교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고 이미지이다.

이모지와 이모티콘



▲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 이모지 옥스퍼드 사전편찬위원회가 2015년 '올해의 단어'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선정했다. 이제는 이모지나 이모티콘도 언어의 하나로 여겨진다는 의미이다.



▶ 이서현(학생 작품) 다람쥐 이모티콘(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 귀여운 다람쥐를 모티브로 하여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디자인하였다.



시각 이미지 속 숨은 의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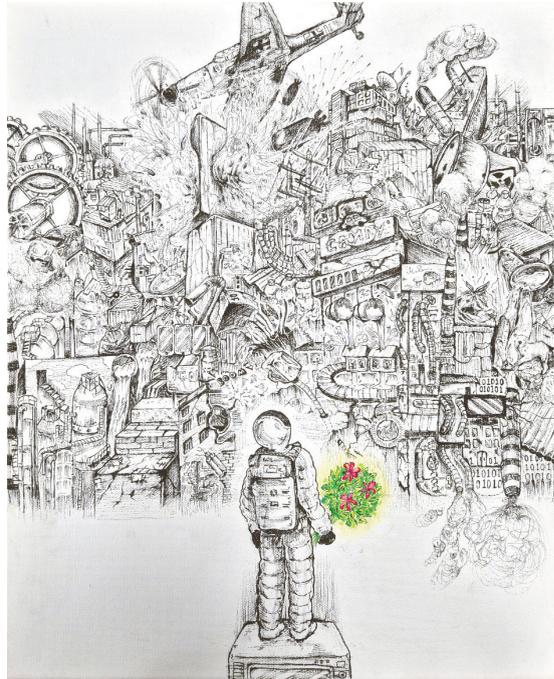
이미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나타내기도 하지만 은유, 차용, 과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함축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다양한 시각 이미지 속 숨은 의미를 찾고 이를 해석해 보자.

작품 속 숨은 의미 찾기



▲ 고펠리(Gormley, Antony/영국/1950~) 북쪽의 천사(철/20×52m, 208톤/1998년) 영국 게이츠헤드에 있는 거대한 철제 조각상이다. 한때 번성했던 철강 산업을 상징한다. 광부들이 200여 년간 일했던 광산 동굴 바로 위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탄광촌에 천사상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 심찬양(한국/1989~) 벨라(벽화/830×740cm/2019년) 안동 동부초등학교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이다. 지역 사회의 소중한 예술 콘텐츠로 벽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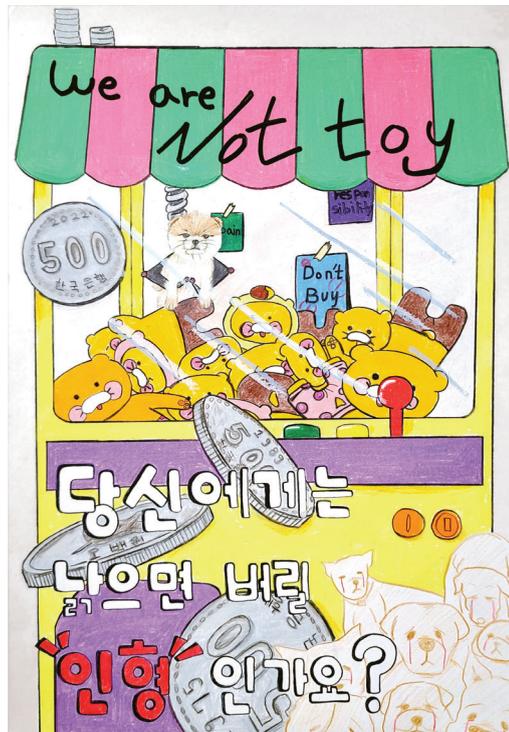
◀ 김민지(학생 작품) 귀향(종이에 검정펜, 색연필/46×38cm) 지구가 멸망한 후 먼 미래의 후손 중 한 명이 인류의 고향이자 인류에게 버려진 지구에 다시 첫 발을 내딛은 장면을 표현한 작품이다. 전쟁, 무분별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으로 황폐해진 지구의 모습을 인류의 후손이 바라보고 있다. 후손이 먼 우주에서 가져온 원래 지구의 것이었던 꽃이 시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 지구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나타낸다.

광고 속 숨은 의미 찾기

광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 포스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범람하는 광고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마이애미 광고 학교에서 제작한 V사의 제품 광고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유화 그림에 생긴 균열 위에 V사의 제품을 발라 매끈하게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여 제품의 보습 효과를 강조하였다.



▲ 박수연(학생 작품)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색연필, 마커/27.2×39.3cm) 매년 버림받는 동물이 10만 마리 이상인 유기 동물 문제를 새겨보게 하는 공익 광고이다.



▲ 전서희(학생 작품) 불어서 우주 여행(종이에 포스터 물감/39.3×27.2cm)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불 수 있는 풍선껌을 광고하는 포스터이다. 채도 높은 분홍색을 사용하여 보는 이의 구애 욕구를 자극한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시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는 때로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인권, 전쟁, 차별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시각 이미지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쟁을 멈추며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담은 시각 이미지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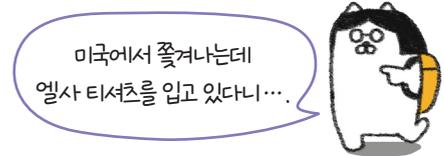
▶ **아이스 버킷 챌린지 영상**(2023년) 루게릭 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한국의 영향력 있는 유명인들도 동참했다.

▶ **가장 위대한 3분**(한국/애드파워/2022년) 버스 정류장에 게재한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려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작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다, 사진 한 장의 힘

순간을 포착한 사진 한 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진실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 **김경훈**(한국/1974~) **장벽에 막히다**(로이터통신 보도 사진/2019년)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 국경 수비대가 발사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온두라스 난민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전 세계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미국 미디어 기업 D사의 엘사 그래픽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눈에 띈다.

알고 가기 시각문화의 확장, 메타버스와 NFT!

교육과 학습, 우정을 쌓고 유지하는 방식, 여가를 보내는 방법 등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문화는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더 높은, 초월한'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가상과 현실 세계가 결합하여 메타버스 안에서 상호 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복사하거나 바꿀 수 없는 디지털 증명서이다. 그림이나 영상 등 디지털 파일 고유의 원본성이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활용한다.



▲ **제주도농아복지관**(한국) **메타버스 디지털 수어 아카이브**(2023년) 단순히 자료를 쌓아 두는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 형식으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어를 알아보는 재미를 더했다.



▲ **레지나 김**(Regina Kim/한국/미상) **꿈속의 환상 여행**(디지털 이미지/2021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쉽게 만나지 못해 꿈속에서라도 그들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고자 만든 디지털 작품이다.

시각 이미지는 때로 글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친구들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

표현 재료

미니어처, 도화지, 색연필, 재활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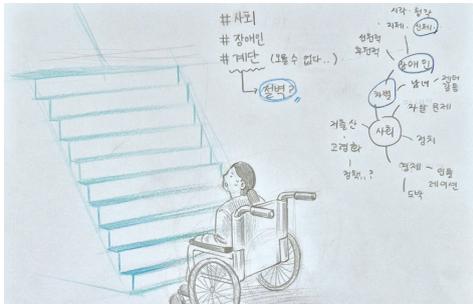
1 사회 문제 탐구하기

- 조를 나누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친구들과 조사해 보자.



2 주제 선정과 아이디어 스케치

- 전달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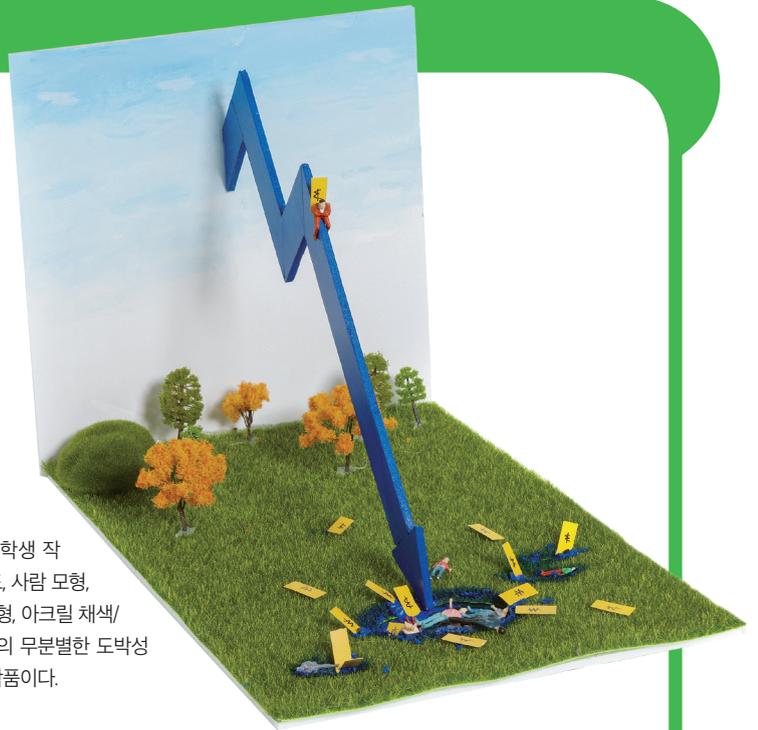
3 채색과 제작 활동

- 다양한 표현 재료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해 보자.



4 전시와 감상 활동

-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



▶ 서시현 외 3인(학생 작품) 푸른 눈(폼 보드, 사람 모형, 나무 모형, 잔디 모형, 아크릴 채색/가변 크기) 현대인의 무분별한 도박성 투자를 경고하는 작품이다.



▼ 조유란 외 3명(학생 작품) 절벽 한 칸(폼 보드, 지점토, 아크릴 물감, 사람 모형, 나무 모형, 잔디 모형/가변 크기)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계단 한 칸이 오를 수 없는 절벽처럼 높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일상에서 함께 즐기는 공공 미술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전시되어 삶의 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미술을 **공공 미술**이라고 한다. 도시나 공원에 있는 **환경 조각**이나 **벽화**, **미디어 파사드**, **스트리트 퍼니처**, **슈퍼 그래픽** 등이 해당한다. 우리 주변에 어떤 공공 미술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자.



▲ **안양 예술 공원**(2021년) 2005년 도입된 공공 프로젝트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원이 탄생했다. 전시·관람 시설이 설치되어 국내외 작가의 야외 미술 작품 50여 점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 모두 2005년에 조성된 작품들이다. (좌) 원통형 구조물 심터인 **리.볼.버**(노이슈타트 Neustadt, Hermann Maier/독일), (중) 주차장과 야외 공연장을 연결해 주는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아콘치 Acconci, Vito/미국), (우) 음료 상자를 재활용하여 만든 **빛의 집**(빈터 Winter, Wolfgang, 회르벨트 Hörbelt, Berthold/독일)



▲ **대전 전민중학교 담장**(2021년) 학생들이 지역 문화를 주제로 노후한 학교 담벼락에 직접 고흐 그림을 패러디한 벽화를 그렸다. 외진 학교 담벼락이 이야기를 담은 근사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표현 활동 도로에 멧을 입혀 보자!

표현 재료

도화지, 컴퍼스, 원형 자, 연필, 폼 보드, 아크릴 물감 등 @ 96쪽 부록 참조

- 1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나 상징 이미지를 조사하고 정리한다.
- 2 자료 조사를 토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 3 도화지에 원형 자를 사용하여 틀을 만들고 연필로 자세히 묘사한다.
- 4 폼 보드를 활용해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맨홀 뚜껑의 음각을 표현한다.
- 5 채색 도구를 활용하여 채색한다.
- 6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한다.



◀ **김주희, 이서현**(학생 작품) **대관령 맨홀 디자인**(폼 보드에 아크릴 채색) 대관령을 두고 연상한 언덕, 양 떼, 풍력 발전기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맨홀 뚜껑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도시나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경관, 건축물, 조형물 등을 랜드마크라고 한다. 대부분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랜드마크로 형성된다. 랜드마크는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Iguaçu Falls)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위치한 폭포로 초당 약 1,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린다. 계절에 따라 150~300개의 물줄기가 형성된다. 경이로운 경관을 뽐내는 이구아수 폭포는 영화의 배경으로도 사용되었다.



▲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Giza pyramid/BC 26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유적 중 하나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경사로의 기물기가 일정하며 종이 한 장 끼워지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쌓였다.



▲ 미국,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1885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상징물이다. 에펠 탑 설계자인 에펠(Eiffel, Gustave)이 내부 철골 구조물을 설계했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던 이민자들이 뉴욕항에 도착하면 처음 볼 수 있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자유와 희망을 상징한다.



▲ 프랑스, 에펠 탑(Eiffel Tower/1889년)

하늘을 향해 솟은 수직 구조의 철탑이다. 산업 혁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에펠 탑을 처음 건립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현재는 파리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었다.



▲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Angkor Wat/12세기)

앙코르 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거대한 규모의 석조 건축과 전면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하다. 사원 정면에서 보이는 탑은 캄보디아 국기에 담길 만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이다.



▲ 영국, 타워 브리지(Tower Bridge/1894년)

타워의 양 끝은 현수교이며 중간의 보행교는 거더교, 도로교는 선박의 통행을 위한 도개교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교량이다. 런던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이다.



▲ 호주,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1973년)

조각비를 연상시키는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 항구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건축물이다. 많은 건축 공학자에게 영감을 준 20세기 건축의 걸작으로 꼽힌다. 뛰어난 공학 기술과 창의성을 동시에 자랑하며 현재에도 세계 수준의 공연 예술을 상연한다.

이렇게 다양한 도시에서 각각의 특색을 담은 건축물이 발달했습니다.



▶ 한국, N 서울 타워

(N Seoul Tower/1975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 관광 명소이다. 전망대에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북쪽으로는 개성의 송악산까지 볼 수 있다. 48분을 주기로 360도 회전하며 서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있다.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파랑, 초록, 노랑, 빨강의 네 가지 색상으로 구분한 조명을 이용하여 서울 시민에게 안내한다.



- 시각 이미지와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주변에서 예시를 찾아 설명할 수 있는가?
-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다양한 매체로 접한 시각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세상은 크고
나는 그 안에 있다.

-호크니-

축제, 어디까지 가 봤니?

전 세계 나라별 축제는 지역,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각 나라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고유의 방식으로 정체성과 전통을 이어 간다. 축제는 그 나라와 지역의 대표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문화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라 토마티나 > 에스파냐 발렌시아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하였다. 현재는 토마토 약 120톤을 거리에 쏟아 놓고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하얼빈 국제 빙등제 > 중국 하얼빈

시베리아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받는 곳인 하얼빈에서 국제 빙등제가 열린다. 매년 1월 5일 전후에 시작하여 한 달간 개최하는 눈과 얼음의 축제이다. 빙등제는 크게 얼음, 눈, 조명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각각의 전시장이 따로 마련된다.



홀리 페스티벌 > 인도 전역

힌두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팔구나(Phalgun)의 보름날을 맞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봄맞이 축제이다. 다양한 빛의 색 가루나 물감을 몸과 얼굴에 뿌리며 화창한 계절을 맞이한다.



버닝 맨 > 미국 네바다주

버닝 맨 페스티벌은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참가자가 미국 네바다주 블랙 록 사막(Black Rock Desert)에 모여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도시 블랙 록 시티(Black Rock City)에서 펼치는 예술 축제이다.



카니발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축제이다. 삼바 학교에서 1년간 준비한 춤과 예술 퍼레이드가 '삼보드로무'라는 행진로에서 펼쳐진다.



우리 지역의 축제를 찾아보고
홍보용 굿즈를 제작해 보아요!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제

매년 10월에 열리는 정약용 문화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념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인문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문화 축제이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삶 곳곳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세계 문화 속 시각 이미지와 문화를 비교해 보자!

• 동두천 니지모리 스튜디오



동두천에 있는 일본식 테마파크형 드라마 세트장으로 숙박 시설까지 갖추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일본 에도 시대 마을을 재현하여 교토의 거리를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일본풍 음식점, 카페, 다양한 상점 등 즐길 거리가 많다.



• 가평 뽀띠 프랑스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뽀띠 프랑스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프랑스 테마파크이다. 프랑스풍 건물로 지어진 마을에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생텍쥐페리 기념관, 메종 드 오르골, 작은 에펠 탑이 세워진 분수 광장 등이 조성되었으며 프랑스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 인천 차이나타운



중국 화교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140여 년 전 조선 시대 말 청나라의 치외 법권 지역으로 지정되어 생겨났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물이 즐비하며 푸짐한 먹을거리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 남해 독일 마을



1960년대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되었다 돌아온 교포들의 정착을 돕고, 독일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독일에서 직접 건축 자재를 들여와 독일 전통 양식의 주택을 지었다. 예술촌, 박물관, 생태 공원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볼거리를 제공하고, 매년 9월 독일의 전통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린다.

